

# 환 경 포 럼

## 세계환경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 준비동향과 주요 논의주제

- I. 지속가능발전과 WSSD
- II. WSSD관련 준비동향
  - 1. UN 제1차 준비회의
  - 2. 동북아시아 지역 준비회의
- III. WSSD 주요 논의주제
  - 1. 사회 : 인구변화와 지속성
  - 2. 경제 : 소비형태의 전환
  - 3. 환경 : 생물다양성 보전
  - 5. 제도 :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화

---

1992년 리우환경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리우선언'과 '의제 21'에 대한 국제사회의 추진성과를 종합평가하고, 2002년 이후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2년 9월 2일부터 11일까지 남아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세계환경정상회의(WSSD)가 개최될 예정이다. WSSD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UN에서는 4차에 걸친 준비회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UN ESCAP 등에서도 지역차원의 준비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WSSD에서 논의될 분야별 주요 주제로는 사회분야의 인구변화와 지속성, 경제분야의 환경친화적인 소비형태 전환, 환경분야의 생물다양성 보전, 제도분야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화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 I. 지속가능 발전과 WSSD

최근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새로운 발전이념으로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으나 이러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30여년전의 일이다.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게된 배경의 하나로 “성장의 한계”라는 1972년 로마클럽 제1차 보고서에 포함된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에 대해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Human and Environment)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라는 슬로건 하에 열린 회의를 통하여 지구환경보전이 세계공통과제로 제시되고, 환경보전원칙에 관한 권고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엔인간환경선언과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of Environmental Programme : UNEP)의 설치가 결정됨으로써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도적인 접근이 시작되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에 들어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갈등을 화해시키는 노력으로 확대되어 나타났다. 갈등의 원인은 이미 산업화를 끝낸 선진국들이 경제발전보다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중시한 반면, 절대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보전보다는 개발을 통한 성장전략을 추구하던 후진국간의 입장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가 유엔인간환경회의 1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1982년의 유엔환경계획회의이다. UNEP회의에서 논의되고 다음해인 1983년 유엔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는 1987년 “우리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류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초개념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시하였다.

유엔결의에 따라,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100여개국 이상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는 1972년 스톡홀름회의 이래 20년간 끌어온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 규범체제를 마련하였다.

이 회의에서 환경보호와 사회경제 발전의 시급한 문제들을 논의하였으며, 21세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제 21(Agenda 21)”을 채택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제사회가 추구해야할 구체적 정책이념으로 확립하였다. 동 회의에서 논의된 작업계획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2년 12월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 UN CSDY)가 설치되었으며, 이 위원회는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리우회의 결과 실행여부를 감시하고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집약해 오고 있다.

1997년 제19차 유엔환경특별총회에서는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한 리우선언 및 의제 21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난 10년간의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고, 2002년 이후 지속가능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리우회의 10주년이 되는 2002년에 세계환경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 WSSD 일명 Rio+10)를 개최기로 결정하였다. 이 회의에는 180여개국의 정상급 인사를 포함한 2만여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II. WSSD관련 준비동향**

### **1. UN 제1차 준비회의**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미국 뉴욕의 UN본부에서는 2002년 WSSD 제1차 준비회의가 개최되었다. 4월 30일 포제 회의에서는 세계환경정상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주제로, 제반 환경분야에 대한 세계화(Globalization)의 영향, 빈곤퇴치 등 지속가능발전의 사회적 측면 검토, 자원 및 기술이전 문제, 그리고 국제환경관리체계(International Environmental Governance : IEG) 등이 제시되었다.

5월 1일과 2일 양일간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는 결정문이 채택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 2002년 1월 제2차 준비회의에 제출할 문서에 이번 조직회의 결과 및 지방, 국가, 지역 등 각 단계(level)에서의 준비활동 결과와

주요그룹의 활동결과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UNEP이 주도하는 IEG의 진행 보고서를 제2차 준비회의에서 보고하고, 최종보고서를 제3차 준비회의에 제출토록 결정하였다. 4차에 걸친 WSSD 준비회의 일정 및 장소, 주요 논의내용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었으나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표 1> WSSD 준비회의 일정 및 장소, 주요 논의내용 요약

| 준비회의        | 기 간               | 장 소         | 주요 논의내용  |
|-------------|-------------------|-------------|--|
| 제1차<br>준비회의 | 2001.4.30<br>-5.2 | 미국 뉴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차문제를 논의하는 조직회의 진행</li> <li>· 정상회의 부의장수, IEG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차기준비회의 시기 등 논의</li> </ul>   |
| 제2차<br>준비회의 | 2002.1.28<br>-2.8 | 미국 뉴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별, 지역별, 지역간 준비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제 21 이행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li> <li>· 의장단이 작성할 결정문은 의제21 이행 성과 및 장애요인에 중점을 두고 작성</li> </ul>   |
| 제3차<br>준비회의 | 2002.3.25<br>-4.5 | 미국 뉴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회의 결과와 추가된 사항을 포함하여 토의</li> <li>· 지속가능발전의 제도적 강화방안, CSD의 역할에 대한 평가 논의</li> <li>· 의제21 이행에 대한 검토 및 평가와 향후 조치(further action)를 위한 권고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작성하여 최종 준비회의에 제출</li> <li>· 정상회의 주제(theme)와 의사일정에 관한 제안을 포함하여 작성</li> </ul> |
| 제4차<br>준비회의 | 2002.5.27<br>-6.7 | 인도네시아<br>발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료급 회의 개최</li> <li>· 첫 2일은 multi-stakeholder dialogue를, 마지막 3일은 고위급 회의를 개최</li> <li>· 동 회의에서는 그 동안의 준비회의 결과문서에 대한 간략하고 정지된(concise and focused) 문서를 작성</li> </ul>   |

2002년 WSSD 일정과 관련하여 각국 정상급이 참가하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의 일정을 포함하여 남아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2002년 9월 2일부터 11일까지 개최하도록 권고하였다. 정상회의 의사진행규칙은 제56차 UN 총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채택토록 권고하였고 정상회의 부의장수는 각 지역그룹별로 5명씩 총25명으로 할 것을 권고하였다. 정상회의에

서의 주요그룹 연설과 관련, “시간상의 제한으로 인해, 승인된 참가그룹 대표 중 소수만이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하도록 하는” 문안이 반영되었다.

이번 제1차 준비회의는 주로 절차문제를 논의하는 조직회의로서 큰 쟁점은 없었으나, 정상회의 부의장수, IEG를 준비하는 시기 등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이견을 보였다. 2002년 1월 말부터 시작되는 제2차 준비회의에서는 정상회의 의제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있을 예정이며, 이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을 사전에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정상회의에서는 기존 의제와 더불어 의제21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세계화의 영향, IEG 등 새로운 의제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2002년 9월 세계환경정상회의 부의장직과 관련하여 그 수가 지역별로 5명으로 정해짐에 따라 국가 수가 가장 많은 아시아지역의 경쟁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 2. 동북아시아 준비회의

지난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중국 북경에서는 UN 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주관으로 한국·일본·중국·몽고·러시아·북한 등 6개국 정부대표와, UNIDO, UNCCD, ADB, UNDP, UNEP 등 국제기구 대표와 이해당사자 대표 등이 참가한 WSSD 준비를 위한 지역 준비회의가 개최되었다. 7월 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 관련이해당사자회의가 진행되었으며, 7월 29일 진행된 정부간 회의에서는 일본 지구환경전략연구소(IGES) 대표가 지역회의 준비를 위해 UN ESCAP 등과의 계약에 따라 작성한 내용을 발표하고 의제별로 각국 대표의 발언과 의견이 제시되었다.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국가정책을 과거 경제발전 우선정책에서 경제·사회·환경이 통합되는 정책으로 전환시켜 왔으며, 구체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사전예방적 접근방법 도입·시행, 2001년 ECO-2 프로젝트, 그린월드컵(Green Worldcup) 준비 등을 소개하고, 그린월드컵이 2008년 북경올림픽 준비에 좋은 참고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역내 적용 가능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을 통하여 역내 각국의 지속가능발전 상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장기적 사업을 통한 기여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나, 중국측이 각국이 처한 고유한 사회경제적 발전단계 및 사용지표의 상이점을 이유로 공통지표 개발 및 사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여, 지역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통지표 개발은 점진적인 추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의에서 일본은 GIS 및 인공위성을 통한 원격탐사기술 등을 소개하고, 특히 지역내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Global Mapping Project 같은 항공우주기술의 적극적인 사용을 언급하면서 자국이 주도하고 있는 구체적인 과학기술 연구 진전사항, 정보의 공유 등을 결정문에 명시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중국은 정보노출과 일본주도의 항공우주기술 발전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면서 반대하여 채택되지 않았다.

중국은 2001년 환경목표와 국가전략 등을 언급하면서 UNCED 이후 지속적으로 환경과 개발에 대한 통합을 법과 제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을 강조하고, 자국이 아직도 개발도상국가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빈곤퇴치, 기술이전 등 지속가능발전의 사회경제적 측면과 세계화의 영향 등을 주요 당면과제로 제시하였다.

몽고는 자국이 겪고 있는 사막화, 토양악화의 문제를 지역내 관심분야로 부각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이는 기타 지역에서도 주요 이슈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환경측면의 성과뿐만 아니라, 빈곤퇴치, 의료·교육 등 사회분야, 기술과 산업의 성과 등 경제분야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분석지표(Assessment Indicator), 과학적 조사 및 정보기술을 강조한 반면, 북한은 WSSD 논의에 대한 동향 파악의 수준에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러시아 및 북한이 IGES측에 제반 기초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이번 회의에서 동북아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 이행성과와 주요 문제점에 대한 지역차원의 접근 및 분석이 미흡하였다.

### III. WSSD 주요 논의주제

UN CSD는 2002년 WSSD의 중점 논의분야로서 리우회의 이후 새롭게 등장한 과제(New Challenges)를 포함한 주요 주제들을 사회, 경제, 환경, 제도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각 분야별로 대표적인 논의주제에 대하여 관련된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사회 : 인구변화와 지속성(Demographic Dynamics and Sustainability)

인구와 빈곤문제는 환경보전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연계한 정책 및 프로그램도 꾸준히 개발되어 진행되고 있다. 인구변화와 관련하여 원론적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를 체계적인 인구정책과 연동하여 추진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성하는 조건이 된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인구변천의 마지막 단계인 후기 균형상태에 진입하고 있으며 저출산이 지속됨에 따라 인구노령화, 노동력 공급 둔화, 학령인구감소 등 새로운 인구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산업화와 함께 도시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농촌인구의 탈농현상의 심화로 점차 공동화되어 가는 추세이며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종 인구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인구와 환경보전, 그리고 경제발전의 연계성을 고려한 정책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 2. 경제 : 소비형태의 전환(Changing Consumption Patterns)

지속가능한 소비는 천연자원의 사용 및 폐기물과 오염물질의 배출 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미래세대의 필요량에 대해서도 만족시킬 수 있는 물질과 서비스의 소비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들어 급속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 등 개발도상국에서 생활수준의 효율적인 향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소비형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또한 지속가능한 소비형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비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현대의 물질적인 소비문화에 대응하여 정신적인 가치에 바탕을 둔 소비문화의 창출을 추구하는 동시에 과도한 광고, 상대적 빈곤감, 과소비 등 시장소비경제의 문제점 개선도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다.

### **3. 환경 : 생물다양성 보전(Global Status of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유전적인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야생 동식물의 멸종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보호지역은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야생동식물들의 멸종 위기는 산림 등 주요 생태 면적의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림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단순히 산림 면적의 감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생태계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속가능성과 여러 가지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는 주요 생태 지역의 확보·유지 등 광범위한 대책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 **4. 제도 :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화(Information for Decision Making)**

최근 세계화와 정보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정보접근의 격차가 세계적으로 빈부격차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정보접근의 용이함과 정보접근의 형평성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는 경제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현재 정보통신망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하여 자원이 움직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잘 발달된 통신체계는 수송의 필요성을 줄여 환경에 대한 부하를 줄일 수 있으며, 특히 정보뿐 아니라 사회, 경제, 제도상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수립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의 확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초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확보·수집하고 학제간의 합동연구를 위한 통합연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책임연구원 정 영 근